

##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에 대한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역할\*

남 승 철<sup>1)</sup> 이 은 정<sup>2)</sup> 허 태 균<sup>3)</sup> 김 세 현<sup>†</sup>

본 연구는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이 독립적인 개념임을 확인하고, 각각의 선망에 대한 개인의 정당성 지각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방식의 영향력이 어떠한지와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연구 1;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장면)와 실험 연구(연구 2; 직장 내 승진 장면)를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상의 정당성 지각을 개인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정도로 측정하였고, 연구 2에서는 선망 대상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조작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뺀 값으로 측정하여, 선망에 대한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두 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호적 선망에 대해서는 정당성 지각의 주효과가, 악의적 선망에 대하여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선망 대상의 정당성이 높을수록 우호적 선망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의 정당성 지각과 악의적 선망 간의 부적관계가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이 하향적인 경우에만 유의하였고, 반대의 경우에는 정당성 지각과 악의적 선망 간의 관계가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거나(연구 1)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연구 2).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의 개념적 독립성을 논하고,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의 악의적 선망과 관련한 사회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해소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우호적 선망, 악의적 선망, 정당성 지각, 자기 지위 인식 방식

\* 본 연구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23S1A5B5A16077263).

- 1)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수료
- 2)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과정
- 3)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교신저자 : 김세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교수,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관  
구관 402호, Tel : 02-3290-1636, E-mail : seanshkim@korea.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신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진 상대방을 보면, 부러움과 동경 혹은 시기와 질투 등의 정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Smith, 2000; Van de Ven, 2017). 특히, 이러한 정서 반응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증폭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 미디어(SNS)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과 부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부유층과의 비교를 현저하게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경과 시기는 일상생활에서 용어를 혼용하기도 하고, 이 두 정서는 서로 유사한 정서로 그 구분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은 대중들이 닮고 싶어 하는 동경의 대상이면서 열등감이나 질투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정인지 등, 2023).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양면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를 동경하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 혐오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전태현, 2022). 이와 같이 동일하게 어떤 대상을 선망하더라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누군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동기부여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혐오 또는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서적 반응(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의 독립성을 확인하고, 두 가지 선망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악의적 선망과 우호적 선망

선망( envy)이란 우수한 자질이나 업적 또는 소유물을 가진 상대를 볼 때, 자신에게는 부족한 그것을 자신도 가지기를 원하거나 상대가 자신과 같이 부족해지기를 바랄 때 발생하는 정서이다(Parrott & Smith, 1993). 선망의 정의를 고려할 때, 선망의 전제 조건이 사회적 상향 비교임을 알 수 있다(van de Ven, 2016). 즉, 자신보다 더 나은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은 상대방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자신은 더 열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에 대해 평가하려는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 비교(social comparison)를 통해 자신의 신념,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다(Festinger, 1954). 자신과 다른 위치에 있는 대상과의 사회 비교에는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와 자신보다 열등한 대상과 비교하는 하향 비교가 있다(서예지 등, 2024; 장은영, 2009). 그중, 상향비교는 양면적인 태도나 반응을 불러온다(이희란, 한덕웅, 2005).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자기 평가로 인해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Sheeran et al, 1995), 자기 개선을 가져오거나 자기 향상 동기를 높이기도 한다(Collins, 1996; Johnson & Stapel, 2007). 이러한 특징은 상향적 사회 비교의 정서적 결과물인 선망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선망은 좌절감을 일으키는 상향 비교에 기반한 정서이지만, 뒤따르는 기능 혹은 행동에 따라 두 가지 유형(우호적 선망; benign envy, 악의적 선망; malicious envy)으로 구분되어 연

구되어 왔다(Lange & Crusius, 2015; van de Ven, 2016). 기능주의적 관점(Cosmides & Tooby, 2000)에서 본다면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행동’과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행동’은 다른 정서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van de Ven et al., 2009). 정서의 기능주의적 접근에 영향을 준 연구들에서는 정서를 ‘느껴지는 행동 경향성(felt action tendency)’으로 정의하고(Arnoid, 1960), 정서를 결정하는데 ‘행동 준비성(action readiness)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Frijda, 2000). 국내 연구(차운아, 2009, 2010)에서도 악의적 선망과 우호적 선망은 느끼는 감정의 내용적 측면에서 유사 정서로 분류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구분되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독립된 정서로 보고 있다. 사회 비교 지향성, 예방 초점과 같은 개인차 특성은 우호적 선망과는 관련이 있었지만, 악의적 선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며, 두 가지 선망의 동기도 서로 달랐다. 구체적으로 우호적 선망은 대상에 대한 연합과 접근의 동기를 유발하는 반면, 악의적 선망은 대상으로부터 분리와 회피의 동기를 유발하였다(차운아, 2010).

사회 비교가 만연한 동양 문화권(예. Chung & Mallery, 1999), 특히 사회적 경쟁 수준과 상향 비교 정도가 높은 한국 사회의 특징(예. 장은영, 한덕웅, 1999)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선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중요성이 상당하며,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선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기존 연구에 의거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비교 장면에서 자신보다 나은 위치의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선망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정당성 지각과 선망

선망 대상이 가진 것을 받아 마땅한지(deservingness)의 여부는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일 수 있다(Bolló et al., 2020; van de Ven et al., 2009). 우호적 선망은 선망 대상의 성공이 정당하고 받을 만한 것이라고 인식될 때 나타나는 반면, 악의적 선망은 선망 대상의 성공이 혈연이나 우연 등에 의해 이루어진, 즉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때 나타난다. 실제로 정당성 지각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우호적 선망은 선망하는 대상 위치로 올라가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만(van de Ven et al., 2009, 2011), 부당함 지각의 결과물인 악의적 선망은 선망 대상을 끌어내리거나 상대와 그 성공을 폄하하며 적대감을 보이는 파괴적인 행동(예: 최란, 2023)으로 이어진다(Lange & Crusius, 2015; van de Ven et al., 2011). 따라서 두 가지 선망은 동일한 상향적 사회 비교에 의한 정서 반응이지만, 선망 주체가 지각하는 선망 대상의 정당성 정도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정당세상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본질적으로 정의롭다고 믿는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심리적 경향성이자 인지적 양식이며,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Furnham, 2003). 정당세상믿음이 높으면, 자신이나 타인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믿으며, 사람들이 현재 가진 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그로 인해 정당세상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친사회성을 나타내며, 낮은 우울감과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Correia et

al., 2009; Guo et al., 2022),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장기적 목표 추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Hafer & Rubel, 2015a, 2015b). 또한 정당세상 믿음은 사회적 스트레스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그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줄여주며(Lambert et al., 1999), 가혹한 현실에 대한 분노(Bègue & Muller, 2006; Furnham, 2003) 혹은 화병(김은하 등, 2016)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선망 대상의 정당성을 지각하게 되면 상향적 사회 비교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때문에, 우호적 선망은 증가 혹은 유지되지만 악의적 선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임혜빈 등(2021)은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n unjust world)에 따라 악의적 선망과 우호적 선망이 다른 반응을 보임을 밝혔다. 개인차로 측정된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정도에 따라 악의적 선망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우호적 선망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을 밝혔다. 타인의 성공에 관한 노력이나 그 과정을 해석하는 것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Rollwage et al., 2020), 선망 대상의 정당성을 해석하는 데 선망 주체가 가진 세상의 정당함을 지각하는 정도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Lerner & Miller, 1978). 따라서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혹은 그와 유사한 개념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정당세상 믿음)은 선망 대상의 정당성을 지각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선망 대상에 대한 정당성을 지각하는 것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사회경제적 지위와 선망

사회경제적 비교는 선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를 활용한 선망 연구는 최근까지도 지속되었다(예. Hong et al., 2020; Ren et al., 2023).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심리적 인식을 나타내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Demakakos et al., 2008)와 개인의 소득이나 교육 수준 등의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측정되는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Adler et al., 2000)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선망에 대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악의적 선망과 우호적 선망을 모두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Hong et al., 2020; Ren et al., 2023). 이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향 비교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선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만약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관계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Tan et al., 2020;  $r = .32, .31 \leq 95\% CI \leq .33$ ). 결국,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끊임없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의 결과물이다(Tan et al., 2020; 참고. Kraus et al., 2012; Kraus et al., 2017).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이더라도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식하는 방향이 서로 다

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 Cheung & Lucas, 2016; Clark et al., 2008; Cohen et al., 2017; Diener & Fujita, 1997). 예를 들어, 동일한 수준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하고 있더라도 이를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면 개인의 심리적 웰빙을 감소시킨다(Cheung, & Lucas, 2016). 반대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해 높게 인식한다면 높은 수준의 심리적 웰빙을 불러온다(예. Cohen et al., 2017). 즉,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보다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해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두 가지 사회경제적 지위를 서로 비교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방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사 인식: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과 유사하게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각, 2) 상향적 인식: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 3) 하향적 인식: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같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선망에 대한 자기 지위 인식 방식(참고. Hughes, 1945)의 영향력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선망에 대한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역동적 관계

기존 연구와 개념적 논리를 토대로 정당성 지각은 우호적 선망과는 정적 관계가, 악의적 선망과는 부적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자기 지위 인식 방

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당성 지각은 선망 대상에 대한 인지 과정의 결과물인 반면,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은 선망 주체에 대한 인지 과정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한 선망 반응에 대하여, 선망 주체에 대한 인지적 결과물과 선망 대상에 관한 인지적 결과물 간의 역동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방식은 환경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세대가 느끼는 무망감은 세상에 대한 평가인 공정성 인식과 자신에 대한 평가인 자존감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며(안계한, 김민희, 2020),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실험적으로 높였을 때 정직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아닌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다(Schindler et al., 2019).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정당성 지각이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개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선망 간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두 선망에 대하여 자기 지위 인식 방식과 정당성 지각 간의 역동적 관계가 발생할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즉,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에 대해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 간의 상호작용을 예상해볼 수 있다.

우호적 선망에 대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예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하향적 인식 집단에서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제 지위보다 더 낮게 인식하므로, 자신보다 우위의 대상과의 차이를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위치가 정

당하다면,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우호적 선망을 경험할 수도 있는 반면, 크게 지각된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여겨 오히려 낮은 수준의 우호적 선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 상향적 인식을 하는 경우에,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자존감과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정당성을 인식하는 것이 자신도 노력을 통해 그 위치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면서 우호적 선망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악의적 선망과 정당성 지각 간의 관계 역시 개인의 자기 지위 인식 방식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동원과 박기완(2017)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에서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정당세상민음과 과시적 소비행동 간의 정적 관계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는 어떤 대상의 정당성을 지각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심리적 위협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반증한다. 즉, 정당한 상황에서 자신보다 우위에 위치하여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선망 대상에 대해 악의적 선망을 통해 그로부터 분리되고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차운아, 2009, 2010).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하향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은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선망 대상의 존재가 그다지 큰 심리적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는 반면, 상향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은 선망 대상으로부터 얻는 심리적 위협이 정당성 지각을 통해 오히려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강력한 위협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악의적 선망에 대한 정당성 지각의 부적 효과는 하향적 인식을 하는 개인에게서만 유의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악의적 선망과 우호적 선망에 대한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영향력과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에 대한 정서 반응에 대한 사회인지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 1에서는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장면에서의 선망 반응에 대한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에 대해 개인의 정당세상민음으로 측정된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특정 장면에서의 선망 반응에 대한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선망 대상의 정당성을 직접 조작함으로써 선망 반응에 대한 정당성 지각의 인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와 개념적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정당성 지각은 우호적 선망과는 정적 관계가, 악의적 선망과는 부적 관계가 유의할 것이다.

**가설 2.** 우호적 선망에 대해 자기 지위 인식 방식과 정당성 지각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가설 3.** 악의적 선망에 대해 자기 지위 인식 방식과 정당성 지각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 연구 1

## 방 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1은 한국 성인 남녀 307명(여성 =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2023년 12월에 약 1주일간 온라인 설문 조사 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 중 2개의 주의점점 문항을 모두 통과한 226명(여성 = 119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불성실 응답자 = 81명; 26.4%)<sup>1)</sup>, 연령 분포는 만 19세에서 61세였다 ( $M = 34.0$ ,  $SD = 9.64$ ).

### 측정 도구

#### 정당성 지각

개인의 일반적인 정당성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K-BJWS; 김은하 등, 2017)를 사용하였다(참고. Lerner & Miller, 1978). 이 척도는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 ‘사람들은 보통 나를 공정하게 평가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8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8 =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측정된 문항은 하위 요인별로 코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경우

1) 온라인 환경의 조사에서 약 25%의 참가자가 불성실 응답을 보일 수 있으며(박원우 등, 2020; Ward et al., 2017),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약 30%의 응답자가 설문 도중 주의 산만을 경험한다(Zwarun & Hall, 2014). 이와 더불어 주의점점 문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불성실 응답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에는 단일 척도로 주로 활용한다(예. 안계한, 김민희, 2020; 전예슬, 김은하,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전체 문항을 평균내었으며( $\alpha = .952$ ),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정당성 지각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자기 지위 인식 방식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은 참여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값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MacArthur Scale of Subjective Social Status로 측정하였다(Adler et al., 2000). 이 척도는 총 10개 단의 사다리 그림(1; 최하층 - 10; 최상층)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층을 고르도록 한다. 최하층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교육과 좋지 않은 직업 또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최상층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좋은 학벌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첨부되었다. 참여자의 응답을 표준화하여,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수입과 학력으로 도출하였고(Adler et al., 2000), 구체적인 문항은 국내 선행 연구(이연경, 이승중, 2017)를 참고하였다. 수입은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 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최저 월 49만 원 이하부터 최고 월 1,000만 원 이상까지 총 15개 수입 구간을 제시하였다. 학력 문항은 “귀하가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에 대해 답해주시시오. 재학 중인 분은 현재 다니고 계신 학교에 대해서 답해주시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총 8단계(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⑧ 박사 졸업(이상))의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과 학력을 각각 표준화한 뒤, 평균 점수를 도출하였다. 이후 두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의 차이 값으로 자기 지위 인식 방식 점수를 도출하였다. 이 값의 양수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객관적 지위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상향적 자기 지위 인식을, 음수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객관적 지위에 비해 낮게 인식하는 하향적 자기 지위 인식을 의미한다. 또한 절댓값이 커질수록 상향적 혹은 하향적 자기 지위 인식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

두 가지 선망을 측정하기 위해 Benign and Malicious Envy Scale(BeMaS; Lange & Crusius, 2015)의 한국어판 척도(임혜빈 등, 2021)를 사회경제적 장면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선망의 하위요인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요인 선망 척도에 비해 본 연구에 적합하다. 척도는 요인별로 6개 문항씩, 총 12개 문항이며, '나는 나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지위를 잃어버리기를 바란다'(악의적 선망), '나는 다른 사람이 이런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우호적 선망) 등의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8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8: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측정된 점수는 각 선망 별로 평균내었으며(우호적 선망;  $\alpha = .941$ , 악의적 선망;  $\alpha = .899$ ), 점수가 높을수록 각 선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분석에 앞서, 표 1에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정보를 제시하였다. 우선, 악의적 선망과 우호적 선망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당세상믿음은 우호적 선망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악의적 선망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은 우호적 선망과는 정적 관계가 유의하였으나 악의적 선망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나이는 악의적 선망, 정당세상믿음, 자기 지위 인식 방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모든 분석에서 나이를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추가로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	평균(표준편차)	1	2	3	4
1. 정당세상믿음	4.77(1.30)	-			
2. 자기 지위 인식 방식	0.00(0.94)	.30***	-		
3. 우호적 선망	5.34(1.41)	.43***	.14*	-	
4. 악의적 선망	2.48(1.54)	-.01	.11	.05	-
5. 나이	34.00(9.64)	-.22***	-.21**	-.08	-.18**

\*  $p < .05$ ., \*\*  $p < .01$ ., \*\*\*  $p < .001$ .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주요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p > .307$ ).

### 선망에 대한 지위 불일치와 정당세상믿음의 효과

두 종류의 선망(악의적 선망, 우호적 선망)에 대한 지위 불일치와 정당세상믿음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화 선형 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종속변인 별로 각각 실시하였다(표 2).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악의적 선망과 우호적 선망 각각의 평균값을

구한 후,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Yazici & Yolacan, 2007)을 실시하였고, 두 변인 모두 정규 분포임을 확인하였다.

우선, 우호적 선망을 종속변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호적 선망에 대한 정당세상믿음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가설 2 기각). 반면, 우호적 선망에 대한 정당세상믿음의 주효과가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였다(가설 1 채택). 즉, 자기 지위 인식 방식과는 상관없이, 정당세상믿음이 높을수록 우호적 선망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악의적 선망에 대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 2 선망에 대한 정당세상믿음과 하향적 인식의 효과

종속변인	우호적 선망				악의적 선망			
	<i>B</i>	<i>SE</i>	$\beta$	<i>p</i>	<i>B</i>	<i>SE</i>	$\beta$	<i>p</i>
정당세상믿음	<b>0.46</b>	<b>0.07</b>	<b>.43</b>	<b>&lt;.001</b>	-0.06	0.08	-.05	.423
자기 지위 인식 방식	0.04	0.10	.02	.711	.012	0.11	.08	.256
정당세상믿음 × 자기 지위 인식 방식	-0.02	0.07	-.02	.729	<b>0.36</b>	<b>0.07</b>	<b>.28</b>	<b>&lt;.001</b>
나이	0.00	0.01	.02	.714	<b>-0.03</b>	<b>.01</b>	<b>-.20</b>	<b>.00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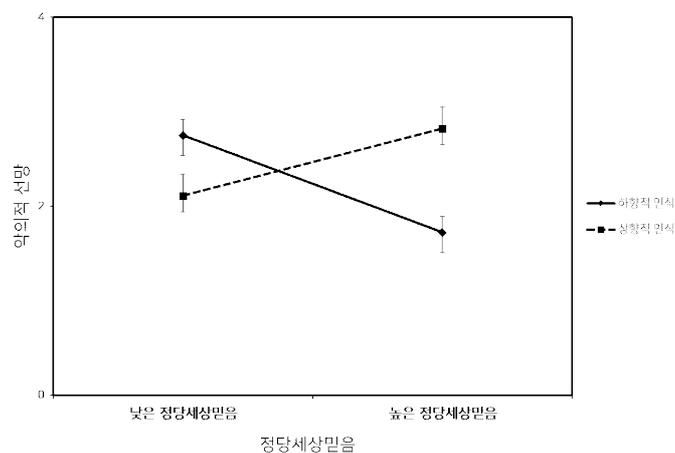


그림 1. 악의적 선망에 대한 자기 지위 인식 방식과 정당세상믿음의 상호작용효과

정당세상믿음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주효과들은 유의하지 않고,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그림 1; 가설 3 지지).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이 하향일 때는 정당세상믿음과 악의적 선망 간의 부적 관계( $B = -0.40$ ,  $SE = 0.10$ ,  $\beta = -.34$ ,  $p < .001$ ,  $-0.60 \leq 95\% CI \leq -0.20$ )가 유의한 반면,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이 상향일 때는 정당세상믿음의 영향력이 정적 방향( $B = 0.27$ ,  $SE = 0.11$ ,  $\beta = .23$ ,  $p = .012$ ,  $0.06 \leq 95\% CI \leq 0.48$ )이었다.

연구 1의 결과, 개인의 정당이 두 가지 선망 반응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정당세상믿음은 우호적 선망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지만, 악의적 선망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는 선망 대상의 정당성 여부가 선망의 유형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Bolló et al., 2020; van de Ven et al., 2009)일 가능성이 시사한다. 또한 악의적 선망과 정당세상믿음의 부적 관계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의 방향성에 의해 조절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향적으로 인식할 때는 정당세상믿음과 악의적 선망 간의 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하향적으로 인식할 때는 둘 간의 부적 관계가 유의하였다. 이는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의 대상에 대한 시기를 느끼는 데 있어서 선망 대상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선망 주체의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1에서는 정당세상믿음을 통해 타인의 성과에 대한 노력이나 과정을 해석한다는 기존 연구(참고: Lerner & Miller, 1978)를 바탕으로 개인차로 측정된 정당성 지각의 효과를 살펴보았기에 결

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 선망 대상의 정당성을 직접 조작하여, 연구 1에서의 가설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망 대상에 대한 정당성 지각이 서로 다른 선망 반응을 이끌어내는 결정 요인인지와 더불어, 두 개념의 독립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 연구 2

### 방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2는 한국 성인 남녀 200명(여성 = 100명;  $M = 43.9$ 세,  $SD_{age} = 13.7$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령 분포는 만 20세에서 69세였다. 연구 1에서 다른 나이에 비해 60대 이상 표본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최대한 균등하게 참가자를 모집하였다(20대 19.1%, 30대 20.6%, 40대 20.6%, 50대 20.1%, 60대 이상 19.6%). 참가자들은 정당 조건과 부당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으며, 주의점검 문항을 통과하지 못한 6명의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G\text{-power} = 158$ , 효과크기 .10, 검정력 .90). 참가자들은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에 답한 후, 자신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문항에 답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조건에 따라 각각 정당함을 유발하는 시나리오와 부당함을 유발하는 시나리오를 읽고 조작점검 문항에 답하였고, 악의적 선망과 우호적 선망을 묻는 문항,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문항에 차례로 답하였다.

### 조작 및 측정 도구

#### 선망 대상의 정당성 조작

연구 2에서는 정당성을 직접 조작하여, 선망 반응에 대한 정당성 지각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정당성 지각을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방식(Jordan & Hartwig, 2013; Poon & Chen, 2014; Ren et al., 2023)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Ren et al., 2023)를 참고하여 직장 내에서 동료 A가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승진에 성공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후반부에 A의 승진 이유(정당성; 성실성과 노력 vs. 부당성; 혈연)를 다르게 서술함으로써 선망 대상의 정당성을 조작하였다.

(전략)... 당신은 A와 이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열심히 일한 후, 회사의 책임자가 당신과 A를 사무실로 불러 “A가 승진하게 되었고, 당신이 2등을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당신은 A가 매일매일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종종 집에 가기 전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모두들 A가 승진할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당 조건) 하지만 이후 당신은 A가 상사의 조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A가 승진한 것은 혈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당 조건)

시나리오를 읽은 뒤, 참여자들은 “A가 승진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정당성 지각을 묻는 문항에 예/아니오로 답하였다. 조작점검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정당성 지각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chi^2 = 51.8, df = 1, p < .001$ .

#### 자기 지위 인식 방식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은 연구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 및 코딩되었다.

#### 악의적 선망과 우호적 선망

연구 2에서는 Sterling(2013)의 척도(김준엽, 박영석, 2018 번안)를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맥락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선망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며, 악의적 선망 4문항(예. A가 목표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하는 데 있어 A가 어려움을 처하기를 바란다)과 우호적 선망 5문항(예. A와 나를 비교할 때, 나는 A가 목표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를 이어가길 바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두 가지 선망을 각각 평균 내었으며(우호적 선망;  $\alpha = .774$ , 악의적 선망;  $\alpha = .836$ ), 점수가 클수록 선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분석에 앞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조작(정당 vs. 부당)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았다. 우선 조작 조건에 따라 자기 지위 인식 방식과 나이, 성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s > .767$ ). 그러나 우호적 선망은 정당 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고 ( $p < .001$ ), 악의적 선망은 부당 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p = .052$ ).

표 3. 조건별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	평균(표준편차)			1	2	3	4	5
	전체	정당 조건	부당 조건					
1. 자기 지위 인식 방식	0.00(1.05)	0.00(1.09)	0.00(1.02)	-				
2. 우호적 선망	5.00(1.14)	5.26(1.00)	4.73(1.21)	.20**	-			
3. 악의적 선망	4.22(1.43)	4.02(1.47)	4.42(1.37)	-.01	-.08	-		
4. 나이	43.9(13.7)	43.90(13.3)	44.00(13.9)	.11	.17*	-.15*	-	
5. 성별	1.52(0.50)	1.52(0.50)	1.52(0.50)	.07	-.05	-.15*	.00	-

주. 성별은 남성(1), 여성(2)로 코딩되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그 뒤,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두 조건 모두에서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분석에서 나이와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 선망에 대한 정당성 조작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효과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선망에 대

한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악의적 선망과 우호적 선망에 대한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Yazici & Yolacan, 2007)을 실시하였고, 두 변인 모두 정규 분포임을 확인하였다. 그 뒤, 우호적 선망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정당성 조작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 둘 간의 상호작용항, 나이, 성별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표 4). 그 결과, 정당 조건(vs. 부당 조건)에서 우호적 선망이 높은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자기 지위

표 4. 선망에 대한 정당성 조작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효과

	우호적 선망				악의적 선망			
	<i>B</i>	<i>SE</i>	$\beta$	<i>p</i>	<i>B</i>	<i>SE</i>	$\beta$	<i>p</i>
정당성 조작	<b>0.53</b>	<b>0.16</b>	<b>.46</b>	<b>&lt;.001</b>	<b>-0.40</b>	<b>0.20</b>	<b>-.28</b>	<b>.044</b>
자기 지위 인식 방식	<b>0.20</b>	<b>0.07</b>	<b>.19</b>	<b>.007</b>	0.01	0.10	.01	.935
정당성 조작 × 자기 지위 인식 방식	-0.18	0.15	-.16	.234	<b>0.48</b>	<b>0.19</b>	<b>.35</b>	<b>.012</b>
나이	<b>0.01</b>	<b>0.01</b>	<b>.14</b>	<b>.042</b>	<b>-0.02</b>	<b>0.01</b>	<b>-.14</b>	<b>.046</b>
성별	-0.13	0.16	-.06	.417	<b>-0.44</b>	<b>0.20</b>	<b>-.16</b>	<b>.027</b>

주. 정당성 조작은 부당(0), 정당(1)로 코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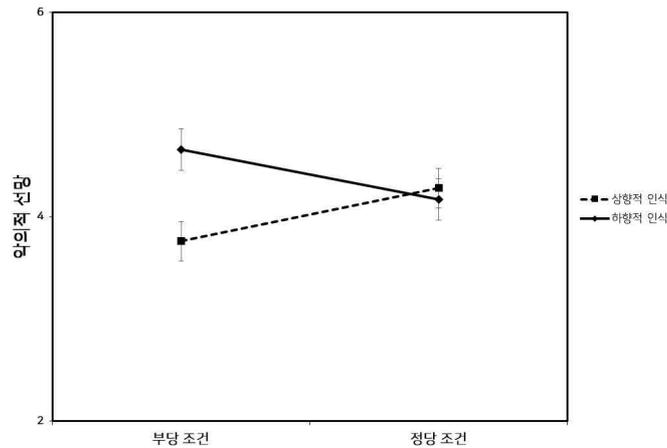


그림 2. 악의적 선망에 대한 자기 지위 인식 방식과 정당성 조건의 상호작용효과

인식 방식은 우호적 선망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이와 우호적 선망은 정적 관계가 유의하였다. 끝으로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정당성 조작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어, 악의적 선망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호적 선망과는 반대로, 부당 조건 (vs. 정당 조건)의 악의적 선망이 높은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정당성 조작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하향적 자기 인식이 높으면 정당성 조작의 부적 효과가 유의했지만 ( $B = -0.91, SE = 0.28, \beta = -.63, p = .001$ ), 자신의 지위를 상향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악의적 선망에 대한 정당성 조작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 $B = 0.11, SE = 0.28, \beta = .07, p = .708$ ). 즉, 전반적인 상호작용의 패턴은 연구 1과 유의하였으나, 연구 1과 달리 상향적 자기 지위 인식에서의 정당성 지각과 악의적 선망 간의 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대상에게 느끼는 독립적인 두 가지 선망에 대한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영향력을 일상적인 장면(연구 1; 일반적인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자)과 특수한 상황(연구 2; 직장 내 승진자) 내에서 확인하고 그 역할을 살펴 보았다. 또한 연구 1에서는 개인차 변인으로, 연구 2에서는 시나리오 조작을 통해 정당성 지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정당성 지각은 우호적 선망과는 정적 관계(연구 1, 2)가 확인되었고, 악의적 선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연구 1), 부적 관계(연구 2)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당성 지각을 개인차 측정(연구 1)과 상황적 조작(연구 2)으로 살펴본 만큼, 선망 대상에 대한 정당성 지각이 선망의 유형을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기존 주장(김준엽, 박영석, 2018; Bolló et al., 2020; van de Ven et al., 2009)을 크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악의적 선망에 대해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 간

의 상호작용효과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이 하향적이면 정당성 지각과 악의적 선망이 부적관계였고, 상향적일 때는 둘 간의 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망은 상향 비교를 전제로 하는 정서 반응이며, 그중 악의적 선망은 상대방이 가진 것을 잃기를 바라는 시기에 가까운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선망을 발생시킨 상향 비교로 인한 부정적 기능이 평소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 인식의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악의적 선망이 상향 비교의 대상을 깎아내리거나(Lange & Crusius, 2015; van de Ven et al., 2011), 대상으로부터 분리, 회피하려는 동기(차운아, 2010)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적인 정서 반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선망 대상의 정당성이 높을 때 스스로를 하향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인은 기능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상향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인은 동일한 상황에서 역기능적인 정서 반응을 함께 보임을 의미한다. 이는 평소의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방향성에 따라 선망을 불러일으키는 상향 비교에 의한 심리적 위협을 다르게 지각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예를 들어, 하향적 자기 지위 인식을 하는 개인은 상향적 인식을 하는 개인에 비해 평소에 상향 비교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망을 유발하는 대상의 상대적 우월성이 그다지 큰 심리적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선망 대상이 가진 정당성은 자신도 그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평소에 상향적 자기 지위 인식을 하는 개인은 하향 비교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선망 대상으로 인한 상향 비교

경험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선망 대상의 정당성이 높다는 것이 위협받은 자기 개념을 외부적으로 해소할 여지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 개념을 회복하기 위해 혹은 심리적 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방을 끌어내리려는 악의적 선망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당성 지각의 역효과는 정당성 신념이 심리적 위협에 노출된 개인의 자존감을 더욱 하락시키거나(Foster et al., 2006), 불안과 분노를 유발한다는(Foster & Tsarfati, 2005) 기존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 결과는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을 구분하고, 각 선망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함의를 갖는다. 우선, 두 개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에 대한 정당성 지각의 효과가 서로 반대로 나타났으며,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역할 또한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두 가지 선망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임(차운아, 2010; Lange & Crusius, 2015; van de Ven, 2016)을 지지한다. 이는 개념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개념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두 가지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해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을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 및 경제적 비교 기준이 극단적으로 높아져버린 한국 사회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2022년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객

관적 위치는 '상위층 17%, 중산층 67%, 하위층 16%'로 나타나는 반면,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치는 '상위층 1%, 중산층 54%, 하위층 46%'로 객관적인 수준보다 훨씬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고재연, 박재원, 2022). 황수경과 이창근(2024)은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구성원 중 오직 11%만 자신을 상위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76.4%는 중산층으로, 심지어 12.2%는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해보면,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비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하향적 인식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이더라도, 인식 방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전혀 다를 수 있음(Cheung, & Lucas, 2016; Cohen et al., 2017; 참고. Clark et al., 2008; Diener & Fujita, 1997)에 주목하여야 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값을 계산하는 데 표준화 점수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적 자기 인식을 하는 개인이 현실(참고. 고재연, 박재원, 2022; 황수경, 이창근, 2024)에 비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절대적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으로 선망을 예측하기보다는 어떠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식하게 만든 상대적인 관점을 반영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향적 자기 지위 인식 집단이 겸손에 의한 것인지 불만족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만약 겸손에 의한 것이라면, 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자존감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불만족에 의거한 것이라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내적 메커니즘을 구분할 수 있는 측정 방법과 더불어, 이를 고려한 선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선망, 특히 악의적 선망은 한국의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기 혹은 질투로 불리는 악의적 선망은 악성 댓글,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한 사회문제들과 밀접하다(박효주, 2023; 최고야, 2023). 특히, 2022년 전체 사이버범죄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한 악성 댓글은 우리 사회의 특수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김영명, 2023; 박희지 등, 2021). 이는 2019년(12,432건; 이은재, 2019)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장의 성장,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지만(차민영, 2022), 디지털 환경의 성장만으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 동일한 기간의 사회 환경 변화가 악의적 선망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시도해볼 수 있다. 한국인의 하향적 자기 인식 경향(고재연, 박재원, 2022; 황수경, 이창근, 2024)과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보면, 악의적 선망과 관련한 사회문제의 급증은 정당성 지각의 감소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사람들은 보상에 대한 정당성을 지각할 때 투입과 보상 간의 형평성을 중요시한다(equity theory; Adams, 1963). 즉, 투입 대비 과도한 보상을 받거나 같은 보상에 대해 적게 투입하는 경우에 높은 불공정 인식을 보이며(Clay-Warner et al., 2016; Kollmann et al., 2020), 이는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정 정서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Davis, 1959; Homans, 1974).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능력보다 노력을 중요시한다는 점(박세영, Harrison, 1998)을 고려했을 때, 한국인은 어떤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합당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정당성 지각의 주요 기준으로 여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의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가격의 폭등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경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적은 노력으로 단기간에 큰 부를 거머쥐는 사례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인데다 그 정보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벼락부자’라는 말로 대변되었다. 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빠른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큰 부를 거머쥐는 사례가 많았고, 그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크게 확산되면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했다. 즉, 과거에는 형평성을 어긋난 사례가 소수로 비추어졌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다수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성 지각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하향적 자기 지위 인식을 많이 하는 한국인에게 악의적 선망의 증가를 불러왔을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디어에 노출된 일반인에 대한 신상털이 범죄(구아모 등, 2024)도 마찬가지로의 논리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는 미디어 노출을 통한 각종 부가 수익 창출(예. 김세린, 2023)이 전통적인 형평 논리(성실한 근로 노력을 통한 부의 쟁취)에 어긋나는 쉬운 길로 여겨져 공정성을 낮게 지각하고, 나아가 악의적 선망을 통한 일종의 공격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악의적 선망에 기인한 온라인 범죄를 사이버 환경의 구조적 변화(예. 익명성 제거, 댓글 작성 기회 박탈 등)로 해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는 본질적인 원인을 짚어내

지 못할뿐더러 악의적 선망을 사이버 공간 밖에서 해소할 경우,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예. 최란, 2023)로 번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선망 대상에 대한 정당성 지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선망 대상의 노력이나 비용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정보의 균형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참고. 이진안 등, 2013). 예를 들면, 금융 자산의 투자로 부를 취득한 선망 대상이 그 결과를 얻기까지 행한 노력(예. 금융 경제 공부, 투자금 확보), 비용(예.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 정당성 지각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선망의 성차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우호적 선망을 보고하며, 악의적 선망에 대해서도 남성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Lange & Crusius, 2015; Liu et al., 202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우호적 선망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악의적 선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연구 2). 이는 직업적 성공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악의적 선망을 자주 경험한다는 점(Henniger & Harris, 2015)을 고려할 때, 남성 참여자가 연구 맥락(사회경제적 지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선망 반응에 성차가 없는 장면(예. 학업, 낭만적 관계)에서 본 연구의 메커니즘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이와 선망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 1에서 나이는 악의적 선망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연구 2의 우호적 선망과 정적 상관(정당 조건)

을, 악의적 선망과 부적 상관(부당 조건)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이 나이가 들수록 부당한 상황이 익숙해짐에 따라 체제를 정당화한 결과(참고. 안혜정 등, 2017)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이와 정당세상믿음 간에 나타난 부적 관계(연구 1)와는 상충되는 해석이다. 따라서 나이와 선망의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망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기대(이하 정당세상기대)'의 효과를 탐색해볼 가치가 있다. 정당세상기대는 공정하고 정당한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적인 믿음으로, 정당세상믿음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부당한 상황에서 정당세상기대의 개인차에 따라 악의적 선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규범 위반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있어서 정당세상믿음이 낮은 경우에 정당세상기대와 처벌 의사 간의 정적 관계가 유의한 반면, 정당세상믿음이 높으면 정당세상기대가 처벌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최승혁, 허태균, 2011). 즉, 부당한 상황에서는 악의적 선망에 대한 정당세상기대의 설명력이 유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함의로 현재 한국 사회의 악의적 선망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정당성 지각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대안적 설명으로서 정당세상기대와 현실의 차이(gap)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꾸준히 사회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고 있다(정경윤, 2018; 정다솔, 2020).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국민의 시민의식은 더욱 더 빠르게 성숙하였다(이성현, 2022; 장순영, 2020). 따라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gap)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듯 기대와 현실

의 차이는 지각된 정당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국민 의식의 성숙과 기대 수준에 비해 사회 현실의 더딘 속도가 정당성 지각에서의 오류를 불러오고, 나아가 높은 악의적 선망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적 설명을 살펴보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 정당세상믿음과 더불어 정당세상기대의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악의적 선망과는 달리 우호적 선망에 대하여 자기 지위 인식 방식과 정당성 지각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모두 정당성 지각과 우호적 선망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우호적 선망에 대한 정당성 지각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의적 선망과는 달리, 우호적 선망은 타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임을 고려하면(Choi & Kim, 2006), 악의적 선망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우호적 선망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맥락을 벗어나 정당성 지각과 우호적 선망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망의 두 가지 유형, 우호적 선망과 악의적 선망에 대한 정당성 지각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선망의 개념적 독립성을 지지하고, 한국 심리학계의 선망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악의적 선망에 기반한 사회문제를 진단 및 분석함으

로써 심리학적 관점의 효용성을 제기하였다. 선망은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에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는 정서로 다양한 사회 현상과 문제를 분석 및 진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지위 인식 방식, 특히 하향적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국내 심리학계의 선망과 자기 지위 인식 방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고재연, 박재원 (2022. 04. 06.). 부동산 주식 폭등에 소외감...30대 절반 이상이 “나는 하위층”.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40686851>
- 구아모, 김보경, 강지은 (2024). ‘벼락 스타’ 신상 털기...한방에 뺏다, 한방에 나락으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1/04/LW2SBRH6WZGLRPMH6CTJSJY44/](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1/04/LW2SBRH6WZGLRPMH6CTJSJY44/)
- 김세린 (2023. 12. 04). “사표 내고 ‘나는 솔로’ 나갈까”...직장인들 한탄 쏟아낸 이유 [이슈+].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426557>
- 김영명 (2023. 03. 26.) 경찰청이 밝힌 2022년 사이버범죄 현황과 2023년 트렌드 5가지.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5507>
- 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25-45.
-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 김준엽, 박영석 (2018). 조직 내 시샘과 부러움: 불공정성 지각, 자존감 수준, 그리고 반생산적 과업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1(1), 103-121.
- 민동원, 박기완 (2017). 지위 상징적 소비를 통한 지위 위협에 대한 대응과 정당성 신념의 역할. 마케팅연구, 32(1), 1-27.
- 박세영, Harrison, W (1998). 형평이론에서 투입과 성과요인의 가중치와 분배원칙 선호-한국과 미국의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1(1), 155-177.
- 박원우, 마성혁, 배수현, 지선영, 이유우, 김자영 (2020). 설문조사에서 불성실 응답의 탐지방법과 제거의 효과. 경영학연구, 49(2), 331-364.
- 박효주 (2023. 11. 17.). “승진 대상 오르자 시기·질투”... 40대 가장 극단 선택.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1708111976245>
- 박희지, 하지민, 박혜림, 강정호 (2021).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딥러닝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한 댓글 분류 시스템.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8(2), 864-867.
- 서예지, 안정민, 정태연 (2024). 한국인의 사회

- 적 안녕감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4), 541-572.
- 안계한, 김민희 (2020).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4), 457-477.
- 안혜정, 안정민, 서예지, 정태연 (2017). 한국 청년세대의 체제정당화: 의미 불일치 경험과 그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47-275.
- 이성현 (2022. 02. 15.). 영주시, 시민 교통문화 의식 수준 지속적으로 상승.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872401>
- 이연경, 이승중 (2017).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1), 1-39.
- 이은재 (2019. 10. 23.). [국감자료] 사이버 명예 훼손 모욕 범죄 급증. Legal Times.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51>
-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2013). 남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조세 공정성 지각에서 사회 비교 정보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93-207.
- 이희란, 한덕웅 (2005). 실패의 경험 후 상향비교의 목표설정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9(3), 55-81.
- 임혜빈, 윤진현, 최준영, 이병관 (2021). 한국판 선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2(2), 271-291.
- 장순영 (2020. 03. 01.). 코로나19 급속 확산에도 '사재기' 급감... '시민의식' 성숙. 빅데이터뉴스.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003011028521170d0a8833aad\\_23](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003011028521170d0a8833aad_23)
- 장은영 (2009). 사회비교와 주관안녕: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57-169.
- 장은영, 한덕웅 (1999). 비교 대상의 선택에서 환류유형, 비교속성 및 통제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01-217.
- 전예슬, 김은하 (2021). 억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20·30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219-241.
- 전태환 (2022. 09. 27.).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동경과 비난 동시대상인 탓.’”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9/27/KZKJHIGGZBFM7L7VMQEHYRWMB4/>
- 정경윤 (2018. 10. 20.). 하반기 공채 화두는 ‘공정성’...블라인드 채용 늘었다.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80821&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80821&plink=ORI&cooper=NAVER)
- 정다슬 (2020. 08. 04.). “기회는 평등하게 결과는 공정하게”...권익위, 김영란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75366625864040&mediaCodeNo=257&OutLnkChk=Y>
- 정인지, 변동휘, 박주환 (2023. 10. 14.). “[디지털 신곡(神曲)③]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한국사회의 역병 ‘질투.’” 투데이 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51>
- 차민영 (2022. 10. 17.) 경제적 비용 30兆..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성댓글. 아시아경제.

- <https://v.daum.net/v/20221017114407309?f=p>  
차운아 (2009). 부러움: 한국의 “무해한 선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71-189.
- 차운아 (2010). 부러움: 연합과 접근의 동기를 알리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51-72.
- 최고야 (2023. 04. 17.). “나는 조롱한다, 고로 존재한다” 악플러의 심리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14/118843699/1>
- 최란 (2023. 09. 07.). 질투심에 여고 동창생과 두 자녀까지 살해...“난 비참한데 넌 왜 행복해”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630562>
- 최승혁, 허태균 (2011).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형사처벌: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13-125.
- 황수경, 이창근 (2024).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한국개발연구원: 세종.
- Adams, J. S. (1963). Towards an understanding of inequit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5), 422-436.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 Arnold, M. B. (1960). *Emo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pects*(Vol. 1). Columbia University Press.
- Bègue, L. & Muller, D. (2006). Belief in a just world as moderator of hostile attributional bia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1), 117-126.
- Bolló, H., Håger, D. R., Galvan, M., & Orosz, G. (2020). The role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in the generation of envy. *Frontiers in Psychology, 11*, 513495.
- Cheung, F. & Lucas, R. E. (2016). Income inequality is associated with stronger social comparison effects: The effect of relative income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2), 332-341.
- Choi, S. C., Kim, K. (2006). Naïve Psychology of Koreans' Interpersonal Mind and Behavior in Close Relationships. In Kim, U., Yang, K. S., Hwang, K. K. (eds.),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International and Cultural Psychology* (pp. 357-369). Springer, Boston, MA.
- Chung, T. & Mallery, P. (1999). Social comparison,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self-esteem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Psychology: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18*, 340-352.
- Clark, A. E., Frijters, P., & Shields, M.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 Clay-Warner, J., Robinson, D. T., Smith-Lovin, L., Rogers, K. B., & James, K. R. (2016). Justice standard determines emotional responses to over-reward.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9*(1), 44-67.
- Cohen, A. J., Brauer, M., Burnett, R., Anderson,

- H. R., Frostad, J., Estep, K., Balakrishnan, K., Brunekreef, B., Dandona, L., Dandona, R., Feigin, V., Freedman, G., Hubbell, B., Jobling, A., Kan, H., Knibbs, L., Liu, Y., Martin, R., Morawska, L., ... Forouzanfar, M. H. (2017). Estimates and 25-year trends of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attributable to ambient air pollution: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Global Burden of Diseases Study 2015. *The Lancet*, *389*(10082), 1907-1918.
- Collins, R. L. (1996). For better or worse: The impa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self-evalu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51-69.
- Correia, I., Batista, M. T., & Lima, M. L. (2009). Does the belief in a just world bring happiness? Causal relationships among belief in a just world, life satisfaction and mood.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1*(4), 220-227.
- Cosmides, L., & Tooby, J. (2000).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emotions. In M. Lewis & J. M.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2nd ed., pp. 91-115). New York, NY: Guilford.
- Davis, J. A. (1959). A formal interpreta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Sociometry*, *22*(4), 280-296.
- Demakakos, P., Nazroo, J., Breeze, E., & Marmot, M. (2008).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the role of subjective social status. *Social Science & Medicine*, *67*(2), 330-340.
- Diener, E., & Fujita, F. (1997). Social comparison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B. P. Buunk & F. X. Gibbons (Eds.), *Health, coping, and well-being: Perspectives from social comparison theory* (pp. 329-357).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oster, M. D., Sloto, L., & Ruby, R. (2006). Responding to discrimination as a function of meritocracy beliefs and personal experiences: Testing the model of shattered assump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3), 401-411.
- Foster, M. D., & Tsarfati, E. M. (2005). The effects of meritocracy beliefs on women's well-being after first-time gender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2), 1730-1738.
- Frijda, N. (2000). Emotions. In K. Pawlik & M. Rosenzweig (Eds.), *Emotions* (pp. 207-222). SAGE Publications Ltd.
-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795-817.
- Guo, Y., Chen, X., Ma, J., Li, Y., & Hommey, C. (2022). How belief in a just world leads to prosocial behaviours: The role of communal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5*, 111642.
- Hafer, C. L., & Rubel, A. N. (2015a). Long-term focus and prosocial-antisocial tendencies interact to predict belief in just worl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5*, 121-124.
- Hafer, C. L., & Rubel, A. N. (2015b). The why and how of defending belief in a just worl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1*,

- 41-96.
- Henniger, N. E. & Harris, C. R. (2015). Envy across adulthood: The what and the who.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7*(6), 303-318.
- Homans, G. C. (1974).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Revised ed.)*. Harcourt Brace Jovanovich.
- Hong, Y. J., Lin, R. M., & Lian, R. (2020). Social class and envy among Chinese undergraduates: Victim justice sensitivity as a mediato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8*(6), 1-9.
- Hughes, E. C. (1945). Dilemmas and contradictions of statu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0*(5), 353-359.
- Johnson, C. S. & Stapel, D. A. (2007). No pain, no gain: The conditions under which upward comparisons lead to better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51-1067.
- Jordan, S., & Hartwig, M. (2013). On the phenomenology of innocence: The role of belief in a just world.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20*(5), 749-760.
- Kollmann, T., Stöckmann, C., Kensbock, J. M., & Peschl, A. (2020). What satisfies younger versus older employees, and why? An aging perspective on equity theory to explain interactive effects of employee age, monetary rewards, and task contributions on job satisfac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59*(1), 101-115.
- Kraus, M. W., Park, J. W., & Tan, J. J. X. (2017). Signs of social class: The experience of economic inequality in everyday lif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3), 422-435.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3), 546-572.
- Lambert, A. J., Burroughs, T., & Nguyen, T. (1999). Perceptions of risk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The role of just world beliefs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6), 643-656.
- Lange, J., & Crusius, J. (2015). Dispositional envy revisited: Unraveling the motivational dynamics of benign and malicious env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2), 284-294.
- Lerner, M. J. & Miller, D. T.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5), 1030-1051.
- Liu, L., Miao, H., He, L., Wang, J., & Guo, C. (2024).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benign/malicious env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ce, 96*(7), 1603-1616.
- Parrott, W. G. & Smith, R. H. (1993). Distinguishing the experiences of envy and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906-920.
- Poon, K. T. & Chen, Z. (2014). When justice surrenders: The effect of just-world beliefs on aggression following ostrac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2*, 101-112.
- Ren, M., Zou, S., Wang, J., Zhang, R., & Ding, D. (2023).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 envy in Chinese collectivist culture: The role of sense of control. *Journal of Psychology in Africa*, 33(1), 17-25.
- Rollwage, M., Pannach, F., Stinson, C., Toelch, U., Kagan, I., & Pooresmaeli, A. (2020). Judgments of effort exerted by others are influenced by received rewards. *Scientific reports*, 10(1), 1868.
- Schindler, S., Wenzel, K., Dobiosch, S., & Reinhard, M. A. (2019). The role of belief in a just world for (dis) honest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2, 72-78.
- Sheeran, P., Abrams, D., & Orbell, S. (1995). Unemployment, self-esteem, and depression: A social comparison theory approach.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7(1-2), 65-82.
- Smith, R. H. (2000). Assimilative and Contrastive Emotional Reactions to Upward and Downward Social Comparisons. In Suls, J., Wheeler, L (eds.),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Theory and research* (pp. 173-200). Springer, Boston, MA.
- Sterling, C. M. (2013). *A Tale of Two Envy's: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on the Consequences of Workplace Social Comparis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ntucky].
- Tan, J. J., Kraus, M. W., Carpenter, N. C., & Adler, N. E.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6(11), 970-1020.
- van de Ven, N. (2016). Envy and its consequences: Why it is useful to distinguish between benign and malicious env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0(6), 337-349.
- van de Ven, N. (2017). Envy and admiration: Emotion and motivation following upward social comparison. *Cognition and Emotion*, 31(1), 193-200.
- van de Ven, N., Zeelenberg, M., & Pieters, R. (2009). Leveling up and down: the experiences of benign and malicious envy. *Emotion*, 9(3), 419-429.
- van de Ven, N., Zeelenberg, M., & Pieters, R. (2011). Why envy outperforms admir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6), 784-795.
- Ward, M. K., Meade, A. W., Allred, C. M., Pappalardo, G., & Stoughton, J. W. (2017). Careless response and attrition as sources of bias in online survey assessments of personality traits and performa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6, 417-430.
- Yazici, B., & Yolacan, S. (2007). A comparison of various tests of normality. *Journal of Statistical Computation and Simulation*, 77(2), 175-183.
- Zwarun, L., & Hall, A. (2014). What's going on? Age, distraction, and multitasking during online survey tak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1, 236-244.

논문 투고일 : 2024. 12. 05

1 차 심사일 : 2025. 01. 31

게재 확정일 : 2025. 02. 12

## The Role of Justice Perception and Direction of Self-perceived Status in Benign and Malicious Envy

Seungcheol Nam Eunjeong Lee Taekyun Hur Seheon Kim

Korea University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concept of benign and malicious envy are independent and examined the influence and role of justice perception and direction of self-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SES) on each type of envy. To achieve this, a survey study (Study 1; general socioeconomic context) and an experimental study (Study 2; job promotion scenario) were conducted. In Study 1, justice perception was measured us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whereas in Study 2, justice perception of the envied target was directly manipulated. Direction of self-perceived status was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subjective SES and objective SES to explore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justice perception and direction of self-perceived status on envy. The results of both studies indicat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enign envy and malicious envy. For benign envy,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justice perception was found, while for malicious envy,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justice perception and direction of self-perceived status was significant. Specifically, higher justice perception of the target was associated with stronger benign envy response. Furthermor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perception and malicious envy was significant only when the direction of self-perceived status was downward. Conversely, this relationship was either positively significant (Study 1) or not significant (Study 2) when the direction of self-perceived status was upward.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conceptual independence of benign and malicious envy and the distinct roles of justice perception and direction of self-perceived statu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social issues related to malicious envy in Korean society and suggests potential solu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Key words* : malicious envy, benign envy, justice perception, direction of self-perceived status